등은 서원이다 › 이모저모 등 이야기

등 만들기, 전 세대 아우르는 포교

조계사, 등 만들기 행사 통해
어린이·청소년·가족·비불자
"즐거운 시간" 호평들 쏟아져

이민우 기자 mincow@hyunbul.com


동자승들이 가족 등 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자신만의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조계사

서울 조계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 방법으로 등 만들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조계사는 어린이·청소년은 물론 부모와 조부모, 심지어 비불자 가족을 위한 등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조계사는 어린이·청소년법회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행렬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 불교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뼈대에 종이를 붙이고,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메시지를 오려 붙이면서 각자의 개성이 발휘된 행렬등을 만든다. 그리고 완성한 등을 들고 연등행렬에 참여해 잊지 못할 추억도 쌓는다. 뿐만 아니라 왜 불교에서 등을 만드는지, 등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법문도 함께 들으며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되새긴다.

조계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린이·청소년 위주였던 등 만들기 참여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해 포교의 폭을 넓힌 것. 조계사는 2018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 가족 연등 만들기 대회'를 처음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가족 등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첫 행사에는 300여 명의 가족들이 참가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고, 2020년 행사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40개 팀 모집이 순식간에 마감됐다. 자녀와 부모, 조부모 세대도 함께 등을 만들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계사는 완성된 등을 경내에 전시하거나 다른 사찰에 기부하는 등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다.

불자가 아닌 가족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포교 효과를 높였다. 조계사는 사전접수 외 현장접수를 추가로 받아 즉석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비불자 가족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우연히 들른 조계사 현장에서 즉석으로 행사에 참여한 비불자 가족 수도 상당하다. 등 만들기를 통해 불교문화를 경험해본 이들은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조계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와 같은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조계사는 이렇듯 등 만들기를 활용한 전 계층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상훈 조계사 법회·행사국팀장은 "과거 등 만들기는 어린이포교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현재 조계사의 등 만들기는 부모·조부모, 비불자들도 함께 하고 있다. 이렇듯 등 만들기는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훌륭한 포교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조계사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포교행사를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현대 조화…생동감 넘치는 불교 체험 유도

진각종, 움직이는 등 선보여
2001년부터 종단 특색 담아
무선 제어 · 예측값 설정 가능


불을 뿜고 있는 용 모양 장엄등. 사진=진각종

전통 등(燈) 문화와 현대 첨단 기술의 조화로 한국불교 등 발전을 선도하는 종단이 있다. 바로 진각종이다. 진각종은 전통 한지 등 형태를 유지하면서 LED조명과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움직이는 등을 제작, 한국불교의 생동감과 역동성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진각종이 움직이는 등을 만든 건 2001년부터다. 당시 연등회가 온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면서 '등' 문화에 관심이 높아졌다. 진각종 역시 등에 생활불교·실천불교를 지향하는 종단의 특색을 담기 위해 고민했고, 현대적이고 차별화된 등을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청룡, 황룡, 공작, 봉황, 손오공 등 다양한 형태의 움직이는 등이 탄생할 수 있었다. 특히 호국불교정신을 이은 '거북선 등'은 정체성과 상징성을 오롯이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청룡과 황룡, 거북선 등은 불을 뿜는 특수효과를 사용해 움직임의 디테일을 살렸다.

움직이는 등은 기술적 과정이 추가되는 만큼 더 많은 제작 시간이 소요된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정 움직임을 위한 별도의 설계와 프로그래밍이 구성돼야 한다. 원활한 작동을 위한 안전성 검토도 필수다. 복잡한 디자인의 경우 길게는 2년이 넘게 걸릴 정도다.

진각종의 등이 기술적 발전을 이룬 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초기에는 유선 방식으로 움직임을 제어했기에, 발전기 이동과 배터리 수명을 늘 신경 써야 했다. 또 등의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이음새가 정돈되지 않아 마무리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끝에 외관은 깔끔하게 정돈됐고, 원격 제어 장치를 통해 무선으로 동작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움직임의 값을 예측하고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 정도다.

현재 진각종은 움직이는 등을 문화포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등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문화행사, 전시회에 등을 출품하고, 등 경연대회를 여는 등 불교와 대중의 거리를 좁혀 나가고 있다. 구장현 진각종 포교과장은 "불교의 가르침과 역사가 담긴 '움직이는 등'은 현대적이고 흥미롭게 불교를 체험할 기회"라며 "대중이 쉽게 불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등 문화 정착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연등행렬 숨은 공신, T자형 연등걸이


봉은사 사부대중이 T자형 연등걸이를 들고 연등행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봉은사

봉은사, 2000년 행렬서 최초 선봬
걸음에 따라 물결치는 행렬 연출
등 2개에 서원 담아 의미도 2배

많은 사람이 연등행렬의 매력으로 수천 개의 등이 어우러지면서 연출되는 장엄한 빛의 물결을 꼽는다. 이 배경에는 2000년 T자형 연등걸이를 선보인 서울 봉은사의 역할이 컸다. T자형 연등걸이는 기존 연등걸이의 아쉬움을 보완하고 '행렬등' 자체를 부각하는데 적합했다는 평가다.

기존 연등걸이는 손을 앞으로 뻗어 사용하는 것으로, 등이 앞사람의 허리 위치에 자리했다. 이 방식은 이동시 등이 앞사람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사람 양 옆으로 빈 공간이 생기면서 황량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 디자인이나 크기를 변화하는 노력은 곳곳에서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웠다. 같은 고민을 하던 봉은사는 행렬등을 거는 연등걸이에 주목했다. 행렬등이 부각되지 않는 것은 디자인이 아닌 행렬등을 드는 방식의 문제라는 생각에서다.

연구를 거듭한 봉은사는 안정적으로 등을 높게 들 수 있는 장대 형태를 채택했다. 또 두 개의 등을 한 번에 들 수 있도록 장대 머리 부분을 T자형으로 만들었다. 장대 형태는 등을 사람 머리 위에 위치시켜 행렬등이 가려지는 것을 막았고, 빈공간도 빛으로 채울 수 있었다.

다만 초기 T자형 연등걸이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데다, 등을 밝히는 데 필요한 크고 무거운 배터리를 함께 들어야 했기에 무게 부담이 심했다. 봉은사는 기술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했고, LED등과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연등걸이를 제작, 부담을 최소화했다. 경량화된 연등걸이를 든 참가자들은 힘껏 행렬등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레 빛의 물결을 연출해냈다.

봉은사는 등에 담는 의미도 놓치지 않았다. 연등걸이에 걸린 두 개의 등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개인적 서원과, 세상을 위한 공동체적 서원이 담긴다. 봉은사는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함께 발원하게 만듦으로써 행렬등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처럼 시각적·의미적으로 연등행렬을 풍부하게 만든 봉은사의 T자형 연등걸이는 순식간에 연등회에 참여한 사찰과 불자들을 사로잡았다. 행렬등이 더 잘 보이는 것을 넘어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렬로 연출되는 장엄한 물결이 혁신적이었기 때문이다. 사회공동체를 위한 서원도 함께 담는다는 점도 불자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충분했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봉은사는 두 개의 행렬등에 담는 의미를 확산하고, 아름다운 연등행렬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T자형 연등걸이 보급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T자형 연등걸이를 활용한 사찰들이 조금씩 늘어나 지금의 연등행렬까지 이르렀다. T자형 연등걸이는 봉은사의 넓은 안목이 고스란히 드러난 연등회의 숨은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우 기자 mincow@hyunbul.com


청정 염불수행도량
영산불교 현지사
종조 광명 만덕 큰스님
회주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성광 교정원장 일도
포교원장 행원 감찰원장 범행
교육원장 대원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제주제2본산 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정대
김해분원 주지 성광 일본분원 주지 성도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hyonjisa.co.kr
• 춘천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15층, 14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김해분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 일본분원 일본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즈마치 3-3-10 ☎ 81-827-31-161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